

國際經濟學會의 略史

本稿는 A. Robinson(President 1959) 教授에 의한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1950—1962(Printed for Vienna Congress 1962)의 抄譯이다.

I. 創 立(The Foundation of the Association)

國際經濟學會(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는 1950年10月 모나코에서 열린 第一次 臨時總會에서 定款이 通過됨으로써 비로소 創立되었다. 同學會의 創設은 루에프(M. J. Rueff · 모나코國務長官)教授를 爲始하여 모제(R. Mosse · 프랑스), 하버러(G. Haberler · 美國), 리이너(G. de Leener · 白耳其), 카일하우(W. Keilhau · 노웨이), 워커(E. R. Walker · 澳洲) 및 로빈슨(E. A. G. Robinson · 英國)教授가 2年餘에 걸쳐 努力한 끝에 誕生되었다.

最初에 同學會에 대한 構想을 發議한 것은 모제教授와 當時 UNESCO幹部 몇몇이 主動하였다. 1948年~49年の 期間中에는 파리에 滞在하던 數名の 經濟關係人士들이 루에프教授를 協助하여 計劃作成과 定款作成에 參與하게 되었고 그 後에야 美國經濟學會(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와 英國經濟學會(Royal Economic Society of Great Britain) 및 그 밖의 歐洲의 諸學會代表들도 公式의인 討議에 參加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初期의 同學會의 創設에 參加한 5個國의 學會는 美國經濟學會 英國經濟學會 캐나다政治學會(Canad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노웨이經濟學會(Statsökonomisk Forening-Oslo) 및 프랑스合同委員會이었다. 따라서 第一次總會에 앞서 이들 間에 學會의 一般的인 性格 組織 및 定款에 관한 大部分의 事項은 決定되었던 것이다.

II. 學會의 目的과 機能(Th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the Association)

學會創立을 討議할 當時에 合議를 보기 어려웠던 難題는 다음 두가지 이었다. 즉 그 하나는 學會의 目的은 무엇이며 그 目的은 어떻게 遂行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었다. 또 하나는 學會의 組織과 會員은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었다. 勿論 學會活動의 넓은 意味에서 본 目的에 관하여는 서로 間에 意見의 差異가 있을 수 없었다.

戰後의 世界風潮는 UNESCO를 誕生하게 할만큼 政府間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國家間的 學術 및 特殊專門機構의 密接한 년대와 그리고 國際的交流增大에 따라 國家相互間의 理解를 增進코자 希求하였다. 이와같은 때에 同學會 創設을 위하여 逢着하였던 難題는 經濟學分野에 있어서 國際의 交渉은 어떻게 實踐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各國에 散在하는 各 經濟學會를 오직 特定한 經濟學會의 活動目的에만 局限하여 여기에서 國際經濟學會의 目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各國의 各 經濟學會가 가지는 類似한 課題 바로 그것을 同學會의 目的으로 찾아야만 하였던 것이다. 例컨대 어떤 經濟學會는 研究誌의 發刊 내지 經濟學의 發展 및 普及이라는 큰 課題를 두고 있다. 또 或者는 學術研究를 위한 集會와 討論에만 重點을 두고 있다. 또는 加入會員의 選定에 있어서는 嚴格한 資格審査를 거쳐 制限 내지 除名까지 하고 있다. 그와는 反對로 經濟學에 關與 내지 興味를 가지고 있는 人士들을 無條件 廣範하게 받아 드리고 있는 學會도 있다.

그리하여 相當한 論難을 거듭한 끝에 結局 同學會의 目的을 具體的으로 規定하지 않기로 하고 原則的으로 國際會議를 그 基本性格으로 하자는데 同意하였다. 그리하여 學會創立以後

지난 12年동안 주로 그와같은 目的遂行에만 오로지 主力하였고 또 傳統을 세웠다. 例컨대 1956年을 除外하고 1950年 以來 每年 事前에 一括的으로 選擇한 研究題目을 30내지 40名의 專門家들을 招聘한 가운데 該當 題目의 受任者가 發表 내지 討論하는 國際會合을 가져왔다. 이와같은 小會議는 대개 10日 내지 보름동안 계속하였고 意見交換 討論 및 批判을 活潑히 하였다. 一般的으로 研究議題는 現代經濟理論 내지 經濟政策의 討論 및 時事問題를 擇하였다. 이와 같은 研究討論에 招聘되는 人士는 會議의 國際의 성격과 各國 參席者間의 均衡維持를 勘案하여 各國의 學術研究分野에 있어서 最高權威者들을 되도록 망라하였다.

1956年과 그리고 1962年에는 同學會가 처음으로 公開會議를 開催하였다. 그러나 小會議만은 그 會議의 重要性이나 價値에 비추어서 몇개국으로부터 초빙한 몇몇 經濟學者들로 構成하였다. 1956年의 公開會議에서는 同學會에 加入된 會員은 누구나 參席할 수 있었다는데 緣由하여 1956年을 起點으로 하여 3年마다 돌아오는 學會總會의 해를 決定하였다. 56年當時의 同學會總會는 로마大學校의 雄壯한 建物에서 파피(*G. U. Papi*)教授의 招請으로 開催되어 無慮 400名의 經濟學者들을 雲集시켰다. 當時 議長은 엘리스(*H. Ellis*)教授이었으며 同 教授가 計劃한 研究議題는 “世界經濟의 安定과 發展”에 관한 것이었다. 會議中에 있어서 5名의 著名한 經濟學者 즉 바이너(*Jacob Viner*) 하버러(*Gottfried Haberler*) 로바아트슨(*Dennis Robertson*) 卿 룬드버그(*Erik Lundberg*) 페루(*Francois Perroux*) 教授는 研究發表에 대한 진지한 公開質疑를 하여 會議분위기를 熱되게 하였었다.

이와같은 로마會議의 成功에 힘입어 1962年 뤼엔나에서 開催한 總會와 더불어 執行委員會와 小委員會도 活氣를 띄웠다. 그리하여 當時에 執行委員會는 4個部門의 小會議를 開催할 것을 計劃하여 보다 많은 人士를 研究討論에 參加시키고자 하였다.

지난 12年동안에 同學會가 主催한 會議의 規模는 점차적으로 擴大하여 왔다. 同學會의 基本理念을 具現시키는 方途로서 第一次 會議에서는 言語의 國境을 無難히 克服할 수 있는 經濟學書籍을 發刊할 計劃을 세웠다. 結局 同學會는 諸外國語로 發表된 論文을 同學會의 公用語로 採擇한 두 言語 즉 英語와 佛語로 번역하여 雜誌에 게재키로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決定은 該當論文이 同時에 두개의 言語 즉 英語와 佛語로 번역되어 同時에 게재되는 것이다.

英文雜誌인 “國際經濟論文集”(International Economic Papers)이 헨더슨(*Elizabeth Henderson*)教授를 編輯幹事로 하고 當時 런던大學校 教授이던 피콕(*Alan Peacock*) 터비(*Ralph Turvey*) 하우트하커(*Hendrik Houthakker*) 및 루츠(*Friedrich Lutz*)教授등으로 構成된 編輯委員會에서 發行되었다. 同 論文集은 年刊으로서 現在 11輯까지 發行되었다. 그 後 編輯委員會 構成은 차차 바뀌어 오긴 하였으나 그 編輯方針은 아직까지도 從前과 다름 없이 推進되고 있다. 如何間 同 論文集이 꾸준히 續刊되고 있는 것은 初期의 有能한 編輯陣營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佛語版 雜誌는 同學會의 主要行事豫定이었으면서도 現在까지 準備段階에 있을 뿐이고 아직 出刊치를 못하고 있다. 한편 一般的으로 使用되지 않는 言語를 통하여 諸國의 經濟學者로 하여금 特定言語로 그들의 思念을 傳達시킨다는 것은 그 밖에 여러가지 方面에서 檢討되고 있다. 專門的小會議는 論文出版이나 討論을 하지 않는 限 參席者를 制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3年 以來로 年次總會에 관한 모든 記錄과 出版物 編輯을 위한 諸般節次와 準備는 헤그(*Douglas Hague*)教授와 배아드(*Joyce Baird*)嬢이 擔當하였다. 그와같이 하여 同學會는 1951年以後 계속 出版物을 發行하였다.

즉 1954年 챔버린(*E. H. Chamberlin*)教授의 編輯에 의한 “獨占, 競爭 및 그 統制”(Monopoly and Competition and their Regulation). 1955年 룬드버그教授의 編輯에 의한 “戰後 世界

의 景氣變動”(The Business Cycle in the Postwar World) 1955年 듀프리즈(*Leon Dupriez*) 教授의 編輯에 의한 “經濟進步”(Economic Progress), 1957年 단론티(*John T. Dunlop*) 教授의 編輯에 의한 “賃金決定理論”(The Theory of Wage Determination) 1958年 토마스(*Brinley Thomas*) 教授의 編輯에 의한 “國際移動의 經濟學”(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1958年 헤그(*D. C. Hague*) 教授의 編輯에 의한 “世界經濟의 安定과 進步” 1960年 로빈슨 教授에 의한 “國家規模의 經濟의 效果”(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1961年 헤그 教授에 의한 “資本理論”(The Theory of Capital) 1962年 헤그 教授에 의한 “인플레이션”(Inflation), 1960年 로스토우(*W. W. Rostow*) 教授의 編輯에 의한 “自立的 成長을 위한 跳躍經濟學”(Economics of Tak-Off into Sustained Growth), 1961年 헤그 教授에 의한 “先進世界의 國際貿易理論”(International Trade Theory in a Developing World) 그리고 1962年 로빈슨 教授에 의한 “經濟發展”(Economic Development) 그 밖에 各地域會議에서 討議發表된 經濟發展에 관한 討論集 등이 各各 出刊되었다.

이와같이 國際經濟學會는 直接 會話를 通하여 또는 間接的으로 文字를 通하여 國際的交流를 增大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學會創設者들의 높은 目的이었다. 그러한 目的은 同 學會의 지난 12年間에 걸쳐 더욱 促求되었고 한층 더 發展되었던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國際經濟學會의 基本目的이 될 것이다.

III. 國際經濟學會의 組織(The Constitution of the Association)

國際經濟學會를 創設함에 있어서 當初에 直面하였던 또 하나의 難題는 同 學會構成의 前提가 되는 會員資格基準에 관한 問題이었다. 이와같은 問題에는 첫째 世界 各國의 個個 經濟學者가 萬若 願한다면 언제든지 個別的으로 同 學會에 加入할 수 있다는 提案과 둘째는 現在 活動하고 있는 諸國의 經濟學會에만 加入權을 준다는 것이었다. 結局 後者를 同 學會組織의 原則으로 取擇하였다.

萬若 國際經濟學會가 各國의 經濟學會—그 中에는 오랜 歷史와 經驗을 가진 美國經濟學會와 英國經濟學會와 같은 것도 있고 혹은 近來에 設立한 프랑스經濟科學學會와 같은 것도 있다. —와 깊은 紐帶를 가지면서 活動한다면 무엇보다도 各國 經濟學會의 支持와 威信을 基底로 하여야 할 것이며 同時에 各國 教授들의 研究活動을 補助할만한 行政의 基盤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勿論 이것은 各 會員이 個別負擔을 할 必要도 없이 國際經濟學會가 會議招請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다만 各國의 經濟學會가 그들의 研究誌를 發行하며 寄贈하는 程度의 機能을 할 수 있다면 充分한 會員資格을 具備하는 것이다. 原則的으로 國際經濟學會는 會議를 通하여 國際的交流를 增大시키고자 하므로 會員에 制限을 두지 않고 會議에 參加할 수 있는 機會를 供與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當初 同 學會創設에 關與하였던 人士들은 이와같은 政策이 國際關係의 效果의 改善과 經濟思想의 刺戟에 最大로 貢獻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깊은 疑心을 품게 되었다.

이와같은 理由로 因하여 國際經濟學會의 會員資格基準을 한 나라에 있어 唯一한 聯合體의 形態의 學會에만 局限하기로 決定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基準下에서 第一次로 美國 英國 프랑스 濠洲 白耳其 캐나다 덴마크 挪웨이 스웨덴 獨逸 希臘 和蘭 南亞聯邦 瑞西 土耳其의 經濟學會가 새로이 國際經濟學會에 加入되었다. 數個의 經濟學組織體가 存在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同 學會의 加入은 위하여 聯合學會를 組織하였다. 12年間에 걸쳐 上記한 20餘個 經濟學會에 잇달아 1962年에 가서는 모두 35個國이 同 學會에 加入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全

세계의 經濟學者 大部分을 망라하고 있다.

會員이 된 各國의 經濟學會는 3年마다 열리는 同學會의 總會에 1名의 代表를 任命 派遣한다. 한편 同學會의 日常業務는 年次會議를 가지는 執行委員會의 指示下에서 議長 副議長 書記와 같은 職員에 의하여 行하여진다. 主要行政業務는 書記가 擔當한다. 첫 10年동안은 버거·러저(*Helene Berger-Lieser*)博士와 같은 有能하고 精力的인 人士에 의하여 行政이 執行되었다는 것은 同學會로서 참으로 多幸한 일이었다. 버거·러저女史는 同學會의 初期職員과 더불어 名聲을 떨쳤으며 傳統을 세웠다. 위엔나會議의 閉幕直後인 1962年 8월에 女史가 逝去하자 同學會는 喪당한 분위기에 쌓였었다. 1959年 女史가 同職을 辭任하자 파리大學校의 파우베(*Luc Fauvel*)教授가 事務局長으로 쿠룩(*Mary Crook*)嬢이 行政書記로 各各 任命되었다.

同學會의 初代會長은 슈페티어(*Joseph Schumpeter*)教授가 內定되었었다. 教授는 學會의 計劃에 깊은 關心을 가지었으며 또한 同職의 受諾을 約束하였던 것이다. 또한 教授는 하버러教授와 더불어 第一次會議에 대한 푸로그래까지도 作成하였었다. 그러나 哀惜하게도 教授는 同會議가 開催하기 以前에 逝去함으로써 同職에 就任할수 없었던 것이다. 그 代身으로 하버러教授가 選出되었고 따라서 그와 그의 後繼者 에리스(*H. Ellis*)는 同學會의 初期의 發展을 위하여 莫大한 努力과 思考와 知慧를 아끼지 않았다.

同學會의 第3代會長은 故린달(*Erik Lindahl*)教授였다. 學會에 대한 그의 貢獻은 生涯末期에 構成하였던 인플레이션에 관한 會議과 이를 爲하여 그는 온갖 精力을 기우렸다. 1959年에는 로빈슨教授에 의하여 會長職이 繼承되었고 다시 現在까지도 在職中인 파피(*G. U. Papi*)教授에게 引繼되었다.

IV. 國際經濟學會의 研究議題(Future Conferences planned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國際經濟學會는 3年마다 열리는 總會에서 次期總會까지의 3年間의 研究討議議題를 決定하여 이를 會員國에 各各 通報하여 發表 내지 質疑의 準備를 시키고 있다. 다음의 研究題目은 國際經濟學會로부터 本學會總務에게 通報된 1963年~1965年間의 研究議題이다.

*

“Activity Analysis and its possible application to economic theory”-Cambridge, England, June/July 1963.

“The Economics of Education”-Menthon Saint Bernard, France, September 1963.

“Price Formation in Different Types of Economics”-1964.

“General Factors governing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among the groups constituting the Nation” September, 1964.

“The Problem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Europe” in collaborations with UNESCO, 1964.

“Problems of Agricultural Policy in Developed Countries and Repercussions in Developing Countries” September 1965.